

서 한 문

- 친애하는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 성남시의 만 65세 이상 인구는 2020년 10월 기준 약 13만 2천여 명, 시민 전체(941,480명)의 약 14.1%로 성남시는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 이는 성남시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의 성장 중심, 생산가능인구의 능률 중심의 사회시스템에서,
이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즉 뉴노멀의 시대에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고민은 WHO의 고령친화도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노인을 비롯한 전 세대, 모든 시민이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을 조성해
더불어 살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
박차를 가해야만 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 이에 성남시는 WHO에서 제시한 고령친화도시
8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의견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모든 연령층이 조화를 이루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3개년 계획’을 추진
하였습니다.

○ 동시에 성남시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본격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2월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고령친화도시 추진에 관한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지난 10월 ‘성남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 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등 고령친화도시로서의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3개년 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각 부서 실무자와 분야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자들이 비전을 공유하고
그 실행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성남시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협력과 화합으로 함께하길 희망하며,
우리 시의 노력을 회원들과 공유하겠습니다.
-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와
성남시 간의 보다 긴밀한 유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0. 12.

성남시장 은 수 미



Dear WHO Global Network for Age-friendly Cities and Communities

This is Eun, Soo-Mi, the Mayor of Seongnam City.

In October 2020, the population of age over 65 in Seongnam City was 132,000, which is about 14.1% of total population, entering an aged society.

This means that Seongnam City needs huge changes in all sectors such as economy, society, education and culture.

In the existing social system which is growth-oriented and productive population-oriented, it now has to prepare for new social system in new normal era.

This concern is closely related with WHO age-friendly city. It is time to accelerate the creation of a friendly environment by creating policies, infrastructure and services for all generations, including seniors, to lead physically, emotionally and socially healthy lives.

Seongnam City has implemented 'Seongnam-type age-friendly city 3 year plan' based on eight guidelines proposed by the WHO to reflect seniors' opinions and needs sufficiently and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all age groups live in harmon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eongnam age-friendly city, the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an

age-friendly city in Seongnam」 was enacted in February last year. Also, to monitor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Age-friendly city monitoring group' was formed in October. Seongnam City is now trying its best to create a foundation for an age-friendly city.

In additio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TF team, which consists of working officials in each department and experts in each sector, was organized for smooth implementation of three year plan. This encouraged seniors to share their vision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eongnam City hopes to join the WHO Global Network with cooperation and harmony and will share the city's efforts with other members.

I hope that there will be closer ties between WHO Age-friendly Global Network and Seongnam City.

Thank you

2020. 12.

The Mayor of Seongnam City

Eun, Soo-Mi

